

혐의회 창설 정신을 충실히

지속적 PS 옹호 운동 펼칠 것

필리핀 PS포장 협의회(PPCP Polystyrene Packaging Council of the Philippines)는 1993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결성되었다. PPCP는 1995년 AMEPS 창립 회원으로 참가한 이래 아시아EPS 업계의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PPCP 창설 이후 지금까지 상근 책임을 맡고 있는 토니정 (Mr. Tony Chiong) 전무를 이메일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PPCP의 설립 동기는?

What is the reason of PPCP establishment?

A. 1990년대 초기는 환경보호론이 떠오르는 시기였다. 그러한 환경보호론 중에는 낡은 과학 정보도 있었다. 이러한 일부 잘못된 정보와 낡은 주장들로부터 PS산업을 방어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The early 90s was a period of rising environmentalism which, in certain sectors, bordered on outdated scientific information. PPCP started to protect the polystyrene inclustry from such a misinformation and outdated claims.

Q. 회원구성 및 회비조달방법은?

How many members participate in PPCP and how do they pay their fee?

A. PPCP는 처음 22개 업체를 회원으로 출발 하였으나 8개 업체가 시업을 중단하여 현재 14개 업체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회비 는 월 5,000페스(한화 약 100,000원)이 다. 필리핀 PS재활용협회(PPRC)의 회원이 며 주주이기도 한 대부분의 회원들에게는 회사 규모와 사용하는 원료 양에 따라 분담 금이 부과된다.

We started with 22 members and now, we are only 14, because the 8 who are no longer members are not in PS business. Fees are assessed Peso 5,000 per members per month. For most of members who are also member and stockholder of the Philippine Polystyrene Recycling Corporation, we assess a levy based on the size of the company and the amount of materials they use

Q. PPCP의 주요 사업은?

What are the main businesses of PPCP?

A. PPCP는 대중에게 쓰레기 분리의 중요성 전파, 지방정부의 악화돼 가는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 지원, 쓰레기 회수 및 유용자원 으로 변환을 위한 재활용 증진, PS포장 및 재활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정 보 청구 역할 등 네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펴고 있다. PPCP's activities are focused on the four main objectives as below.

*To inform the public on the importance of waste segregation in our society

*To support the local government in their drive to solve the worsening problem on waste disposal

*To promote recycling as one of the major tools to recover and retrieve wastes and convert them into useful materials

*To serve as a responsible information channel for issues relating to polystyrene packaging and PS regrating

Q, 폐스티로폴의 회수·재활용은 어떻게 이 루어지나?

What is your system of collection and recycling of waste EPS?

A. EPS의 경우 감용기가 탑재 된 2대의 이동 차량이 다량의 폐스티로폴을 모아 놓은 공 장을 찾아간다. 또 적정 규모 이상의 정규 적 폐기물 발생처에 설치 된 고정 감용설비 가 10기 이상 있다. 대부분의 EPS는 잉고 트로 생산 돼 중국으로 수출된다. 펠릿은 생산하지 않는다.

In case of EPS, we have 2 m do ite EPS melting machine on trucks, and they go to factory that has accumulated big volume of waste, however, there are also more than 10 units of fixed machine that are installed in regular waste generator whose volume are regular and big. Most of EPS are melted into ingots for export to China None is doing Pelletizing.

Q. 필리민은 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 진 국가로 알고 있다. 스티로플재활용에 있어 이러한 지리적 여건의 불리함을 어 떻게 극복했는지?

The Philippines is a nation which consists of about 7,000 islands. How PPCP overcomes such a disadvantage in waste EPS recyding?

A. 지방과 섬의 경우 우리는 LP가스와 페식용 유를 사용하는 단순하고 저렴한 감용기를 고안했다. 현재 그들은 폐기물을 어디에 버 려야할지를 걱정하지 않고 스스로 PSP를 녹일 수 있다. 폐PSP는 녹여서 화분이나 바닥 타일로 성형된다. 이것은 정부의 과학 기술부와 공동사업이다. (보다 많은 지료는 www.pcp.or.ph 참조) In case of the provinces and islands, we designed a simple low cost melting machine using LPG and used coding of Now, they can melt PSP by themselves

without warrying where to dispose of the waste materials. Waste PSP are melted and cast molded into flower pots or floor fles. This is a joint project with the government's Socience and Technology Department.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our website www.ppcp.or.ph)

Q, 향후 PPCP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나?

What will be the most important business of PPCP in the future?

A. PPCP는 PS용호 운동을 위해 결성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성격상 지속적으로 계속 되 어야만 할 사업이다. 한편 PPRC의 경우 우리는 재활용을 위한 수집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PPCP was formed to do advocacy campaign for PS. This is going to be something that is continuous in nature. While in case of PPRC,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waste collectors for recyding.

Q. 필리핀 스티로폴시장의 현황은?

How is EPS(PSP) market situation in the Philippines?

A. 시황은 저조하다. 왜냐하면 시장규모는 작고 공장들은 이익이 적어 재정비를 하기 때문이다. 시장은 환경적 문제때문이 아니라 비용 문제로 고전하고 있다. 종이 포장이 FS P접시보다 싸서 즉석식품포장이 더 싼 재질로 변하고 있다. 한편 EPS포장의 경우 가전제품 수출산업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 등 다른 나라로 바뀌었다.

Business is slow because market is small and manufacturers re-aligned their business due to small profit. Market is down nd because of environmental reason, but it is because of cost. Paper wrapper is cheaper than PSP trays. And last foods change to cheaper packaging materials. While in case of EPS, business of export processing for home appliance shitted to diher countries like Vietnam, Malaysia and China.

- Thank you for your kind explanation.



MR. TONY CHIONG

토니 정 전무는 필리핀 석유화학, SMP 공업 등 PS 원료 업계에서 근무했다. 2001년부터 필리핀 대통령으로 부터 국가고형폐기물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되어 활동하고있다. 현재 AMEPS 회원 중 창립에 직접 관여한 유일한 인물이기도하다.

Mr. Tony Chiong worked for 2 PS resin manufacturers (Philippine Petrochemical Products INC, and SMP Manufacturing). He was appointed to a government position by President of the Philippines to be a commissioner at the National Solid Waste Management Commission since 2001. He is the unique person who are working active in AMEPS among peoples who took part in foundation of the organization.